DIPLOMATIC
WHITE
PAPER
2011

3.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외교

제1절 신아시아 외교 068

제2절 유럽 지역외교 078

제3절 중남미 지역외교 091

제4절 아프리카·중동 지역외교 101

제5절 지역간 외교 111

제1절

신아시아 외교

2010년 신아시아외교(New Asia Initiative)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아시아 주요국과의 관계 격상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주력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월 인도를 방문하여 한·인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으며, 10월 ASEAN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한·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합의하였다. 전략적 수준으로의 관계 격상을 통해 이들과의 협력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아 지역과의 정상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카리모프(Islam Abduganievich Karimo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2010년 2월,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4월 각각 국빈방한하여,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내실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졌다. 말레이시아와는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발리 민주주의 포럼을 공동 주재함으로써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와의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1. 동북아시아 지역

1) 한·일 정상회담

2010년 한·일 양국은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5.29-30), 토론토 G20 정상회의(6.26-27), ASEM 정상회의(10.4-5), APEC정상회의(11.13-14) 등 다자회의 계기에 총4차례 정상회

한·일 정상회담(2010.11.14, 요코하마)

담을 가졌고, 상호 신뢰관계 구축은 물론 양국간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6월 26일 토론토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칸 나오토 일본총리 취임후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북한문제, 경제협력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정상간 상호 신뢰 구축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가깝고도 가까운 한·일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고, 한·일 강제병합 100년인 2010년이 새로운 한·일 우호협력 100년을 열어가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칸 총리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미래지향적 우호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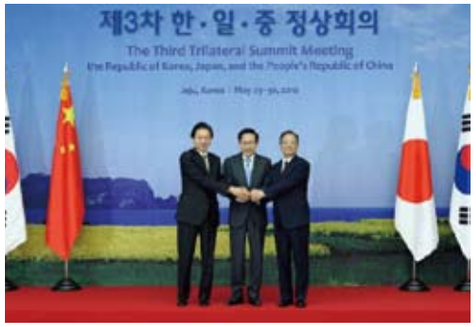
아울러 양국 정상은 천안함 사태, 북한 핵 등 북한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하였다. 칸 총리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사태 논의 뿐 아니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및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하였고, 이후 양국의 긴밀한 협력하에 2010년 11월 두 정상회의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2) 한·중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4월 상하이엑스포 개막식 참석차 방중, 6월 토론토 G20 금융정상회의 및 11월 서울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중 정상회담(2010.4.30, 상하이)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2010.5.29-30, 제주)

양국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평가하고, 상호 고위급 왕래를 통한 전략적 소통 강화 및 청소년 교류, '양국 방문의 해' 행사를 통한 우호증진, 실질분야에서의 협력 심화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아울러 G20 협력, 북핵 및 천안함 사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력과 의사 소통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 한·일·중 정상회의

이명박 대통령은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및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함께 2010년 5월 29-30일 제주에서 개최된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금번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후쿠오카, 2009년 10월 북경에 이어 3국내에서 개최된 세번째 회의로서, 3국은 향후 10년간 3국 협력이 나아갈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3국협력 VISION2020」, 2011년 한국내 상설 사무국 설립에 합의하는 「3국협력 사무국 설립각서」, 「표준협력 공동성명」 및 「과학혁신 협력강화 공동성명」 등 총4건의 공동문서를 채택하였다.

이밖에도 3국 정상은 고용·노동분야 협의체 구축, 치안협의체 구축, CAMPUS Asia 시범사업, 공무원 교환방문사업, 녹색경제세미나, 순환경제시범단지 구축 고위급 포럼, 외교관 단기연수사업 등 7개 신규협력사업을 채택하였으며,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 및 투자협정 조속 타결 노력 합의를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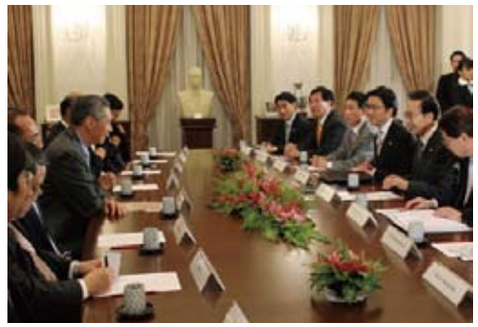
또한 G20, 기후변화, 핵안보, 국제경제·금융위기 공동 대응, 동아시아지역협력, 군축·비확산, 유엔 개혁 등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천안함 사태 관련 3국간 공조 의사를 확인하였다.

2. 동남아시아 지역

1)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샹그릴라 회의 계기 2010년 6월 4-5일간 싱가포르를 공식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리센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였다. 양국 정상은 경제·통상, 녹색성장, 문화 협력,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양국정상은 향후 양국간 교역 촉진 등 실질경제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가 개도국의 녹색성장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에 대한 싱가포르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양국 정상은 한국문화원 설립 협력 등 양국간 문화·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질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한편, 동아시아 역내 협력 심화·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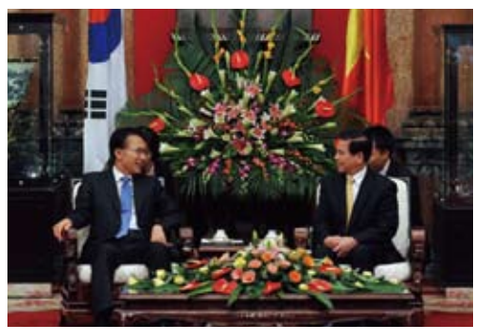
한·싱가포르 정상회담(2010.6.5, 싱가포르)

2) 한·베트남 정상회담

2010년 10월 28-30일간 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응웬 밍 찌엣(Nguyen Minh Triet)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였다.

양국 정상은 2009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양국간 협력이 크게 증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간 실질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프라 건설 등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



한·베트남 정상회담(2010.10.30, 하노이)

한·필리핀 정상회담(2010.10.29, 하노이)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2010.12.9, 발리)

출, 한·베트남 FTA 추진, 양국내 체류 국민 보호 및 다문화가정 지원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 한·필리핀 정상회담

ASEAN+3 정상회의 참석차 2010년 10월 28-30일간 베트남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6월 취임한 베니그노 아키노 3세(Benigno S. Aquino III) 필리핀 신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 교역 및 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필리핀 신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의 전통 우방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필리핀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한국의 지원 증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11만명이 넘는 필리핀내 우리 교민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4)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제3차 발리 민주주의포럼 참석 계기 2010년 12월 8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통상·투자 증진, 에너지·자원·방산·인프라 협력, G20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발리민주주의포럼 개최 등 역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유도요노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고, 양 정상은 동 포럼 공동주재를 계기로 역내 민주주의 증진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네시아 중장기경제개발계획에 주파트너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대통령은 이를 수락하고,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하며, 인도네시아 경제개발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양 정상은 방산물자 공동생산·기술이전 등의 국방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협력 지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특히 2011년 ASEAN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5)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2010년 12월 9-10일간 한국·말레이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나집(Najib Razak)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신아시아 외교가 한국·말레이시아 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했음을 평가하고, 양자·지역·국제 이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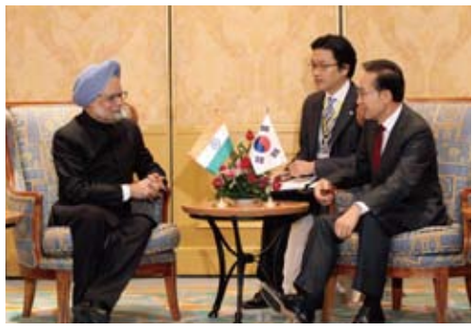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2010.12.10, 쿠알라룸푸르)

양국 정상은 한국·말레이시아 FTA체결 등 양국 교역·경제 관계 심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양국 관련 업계가 이해를 같이 하는 석유·가스 탐사·생산 사업 관련 공동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ASEAN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 서남아·태평양 지역

1) 한·인도 정상회담

ASEAN+3/EAS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0월 29일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



한·인도 정상회담 (2010.10.29, 하노이)

은 2010년 1월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양국 관계가 빠르게 확대·발전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향후 한·인도 CEP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교역 확대, 원자력 협력, 국방·방산 협력, 과학기술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개발 의제 등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고,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하였다.

2) 한·호주 정상회담

2010년 11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줄리아 길라드 (Julia Gillard)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금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호 FTA'협상 진전에 대한 상호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의 양국 공조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내년 한·호주 수교 50주년 기념 '한·호주 우정의 해 2011'을 맞아 양국간 문화·학술·인적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양국 국민간 상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호주 정상회담 (2010.11.10, 서울)

또한 양국 정상은 ASEM 정상회의(2010.10.4, 브뤼셀) 계기에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자 현안 및 지역·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3)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2010.7.5, 서울)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7월 4-7일간 우리나라를 방문한 존 키(John Key)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였다. 존 키 총리의 방한은 2009년 3월 이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루어졌다.

양 정상은 2010년 6.25 전쟁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교육·문화·영화·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상호협력과 기후변화, 농업 및 임업 등을 포함한 연구 및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한층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2012년 한·뉴질랜드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2012년을 '한·뉴질랜드 우호의 해'로 지정하고, 양국간 인적·문화교류를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밖에 양국 정상은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도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4) 한·방글라데시 정상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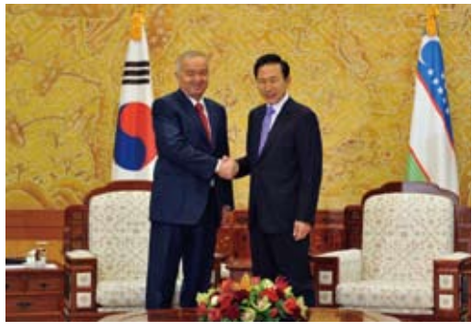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16-18일간 공식 방한한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한·방글라데시 우호협력 관계 증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양국민의 희망을 반영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경제·통상, 에너지·자원·인프라건설, 개발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 비G20 국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설명하고, 2012년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 유치를 위한 방글라데시의 지지와 건설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한·방글라데시 정상회담 (2010. 5.18, 서울)

4. 중앙아시아 지역

1)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2월 10-12일간 한국을 국빈방문한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2월 11일 정상회담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된 금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관계,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2010.2.11, 서울)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정상은 가스전 개발과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이 결합된 수르길(Surgil) 프로젝트의 투자협정서가 2010년 2월 11일 체결되어 동 사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압축천연가스(CNG: Compressed Natural Gas) 등 녹색성장 분야 및 나보이(Navoi) 산업·경제 특구 조성 등 인프라 개발 사업에서도 호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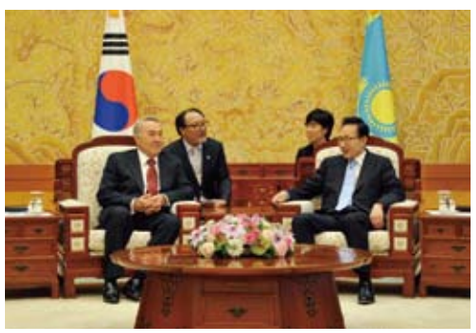
특히 2010년 2월 정상회담 계기에 수르길 투자협정서, 대체에너지원 및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협력 양해각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Fund) 보충약정 등 50여건의 정부간 협정 및 기관간 MOU와 기업간 협정서가 체결되어 향후 양국간 실질협력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양국 정상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에 이은 카리모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상호 우의와 신뢰를 돈독히 하고, 양국간 실질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게 되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위해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였다.

2)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4월 21-23일간 국빈방한한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4월 22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과 지역·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2010.4.22, 서울)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정상간 수시회동을 비롯한 각계 고위인사 교류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2010년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의 해', 2011년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의 해', 2012년 한·카자흐스탄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한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잠빌해상광구 공동개발 등 전략적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 이외에도 양국간 논의중인 항만개발, 석유화학, IT, 방산, 교통·인프라, 보건, 농업 등 제반분야에서의 신규 협력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유엔,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및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등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제2절

유럽 지역외교

유럽은 우리 외교의 5대 축으로 제1위 대한국 투자주체이자 우리의 제2위 교역상대로서, 인권·민주주의·시장경제 등 주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2010년 한국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양측은 한·EU 기본협정 및 한·EU FTA의 공식 서명을 통해 양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다. 이로써 한국과 EU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양자간 실질협력관계 뿐 아니라, 경제위기·비확산·기후변화·개발 등 세계 주요현안 대처에 있어 보다 긴밀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였다.

1. 정상외교

1) 한·스페인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제40차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연차총회(일명 '다보스 포럼') 참석 계기에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빠떼로(José Luis Rodriguez Zapatero) 스페인 총리와 2010년 1월 28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주요 현안 및 세계 경제위기, 기후변화 등 국제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정상은 2010년 한·스페인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한단계 격상시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고위인사 교류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2010년 상반기 EU 의장국인 스페인과 2010년 G20 의장국인 한국간 세계 경제회복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사회에서의 공조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한·EU 기본협정 및 한·EU FTA의 조속한 서명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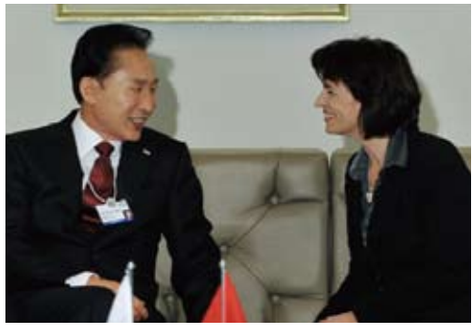
2) 한·스위스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월 28일 다보스 포럼 참석 계기 도리스 로이타르트(Doris Leuthard) 스위스 연방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현안 및 국제 이슈에 대해 협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우리나라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양국간 통상·투자가 증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과학기술, 환경, 의약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 대통령은 스위스가 지난 50년 이상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에 대표를 파견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것을 평가하였고, 로이타르트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였다.

한·스페인 정상회담(2010.1.28, 다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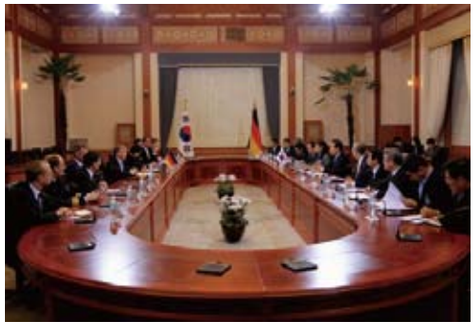
한·스위스 정상회담(2010.1.28, 다보스)

3) 한·독일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2월 8일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 호르스트 쾰러(Dr. Horst Kohler) 독일 연방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한·EU FTA 조기 서명·발효, 교역·투자 증진, 재생에너지·녹색성장 협력 등 제반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분단 속에서도 경제기적을 이루어낸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면서, 수교 이래 양국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데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독일측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으며, 쾰러 대통령은 한국이 금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한·독일 정상회담 (2010.2.8, 서울)

한·덴마크 정상회담 (2010.3.11, 서울)

받고 있다고 하고, 이를 통해 한·독 양국이 새로운 세계질서에 건설적인 기여를 해 나가자고 하였다.

4) 한·덴마크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라스 라스무슨(Lars Rasmussen) 덴마크 총리와 2010년 3월 11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대표적인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국가인 덴마크와 최근 신재생에너지·녹색성장 분야에서의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동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라스무슨 총리는 향후 동 분야에서 더욱 많은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EU FTA 및 기본협정 서명·발효시 양국간 교역·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국이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였고 덴마크가 개발원조분야의 선도국인 만큼 동 분야에서도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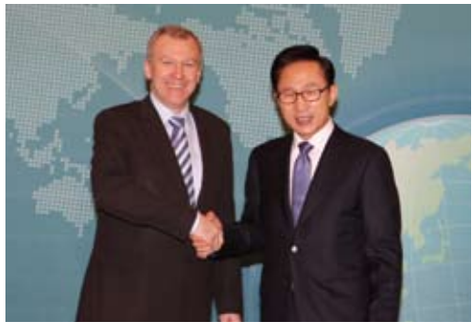
5) 한·벨기에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4월 5일 방한한 이브 레테름(Yves Leterme)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한·EU FTA, 세계금융위기 대처 및 G20 등 주요 국제관심사와 함께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정상은 1901년 수교 이래 제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국관계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EU FTA의 조속한 서명 및 발효를 위해 노력키로 합의하는 한편, 10월 브뤼셀 ASEM

정상회의와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동 국제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0월 4-5일간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8차 ASEM 정상회의 참석 계기 벨기에를 공식 방문하여 10월 5일 레테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고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은 한·EU FTA의 정식 서명을 환영하고, 한·EU FTA가 2011년 7월 잠정 발효될 수 있도록 긴밀히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벨기에 정상회담 (2010.4.5, 서울)

한·벨기에 정상회담 (2010.10.5, 브뤼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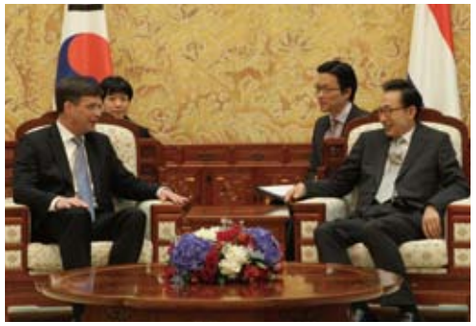
6)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4월 28-29일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얀 피터 발커넨드(Jan Peter Balkenende) 네덜란드 총리와 4월 28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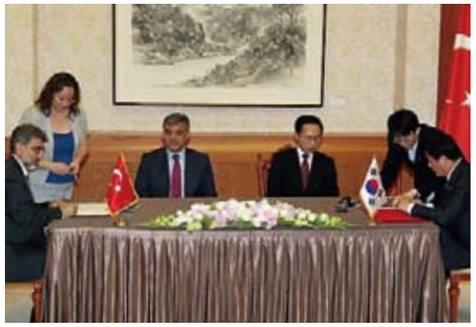
양국 정상은 교역·투자 증진, 재생에너지·녹색성장, 개발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방안, 한반도 및 유럽 정세, 국제금융위기 대처 등 주요 국제이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1961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만족을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신재생에너지·녹색성장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잠재력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조선·물류·수자원관리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2010년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 참전국인 네덜란드와 참전용사에게 사의를 표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의 개방적 경제구조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가능성을 감안 할 때 한·EU FTA 및 기본협정 서명·발효시 교역·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데 인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2010.4.28, 서울)



한·터키 정상회담 (2010.6.15, 서울)

식을 같이하고, 동 협정들의 서명·발효를 위해 긴밀히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발커넨드 총리는 네덜란드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에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7) 한·터키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5일 국빈방한한 압둘라 귤(Abdullah Gül)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지역정세·주요 국제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터키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에 사의를 표하였고, 양국 정상은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교역·투자 증진, 한·터키 FTA, 에너지·건설·방산분야 협력, 문화교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고,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터키 세관상호지원협정, 문화교류 시행계획서, 원전협력 양해각서, 지질연구 양해각서 등이 서명되었다.

8) 한·EU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0월 6일 브뤼셀에서 헤르만 반 롬퓌이(Herman Van Rompuy)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조제 마누엘 두라옹 바호주(José Manuel Durão Barroso) EU 집행위원장과 제5차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양측 정상은 한·EU FTA 및 한·EU 기본협정, 항공협력 등 양자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G20 정상회의, 기후변화, 핵비확산, 개발원조 등 주요 국제이슈와 함께 한반도·

유럽·아프간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양측 정상은 1963년 한·EU 외교관계 수립 이래 한국과 EU가 인권과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두 축으로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는데 만족을 표명하고, 2010년 5월 서명된 한·EU 기본협정과 금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된 한·EU FTA를 기반으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측 정상은 한국과 EU가 상호 협력하여 제8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Asia-Europe Meeting)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점을 평가하는 한편, 국제금융위기와 비확산 노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와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EU 정상회담 (2010.10.6, 브뤼셀)

한·독일 정상회담 (2010.11.11, 서울)

9) 한·독일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11일 서울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연방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재생에너지·과학기술 협력·민간경제협력 활성화 등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과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그간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부품소재 부문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 양국 정상은 정부간 협력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메르켈 총리는 한국이 G20 의장국으로서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도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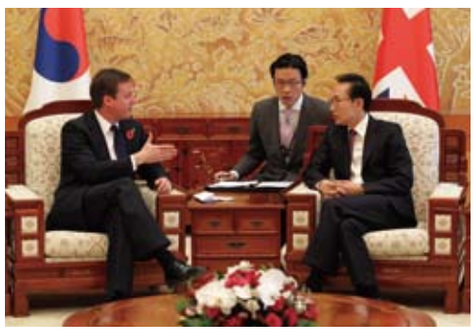
위해 관련국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독일의 통일 및 통일 이후 사회통합 경험을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기후변화와 핵안보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독일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우리의 제1위 교역상대국이자 제3위 대한 투자국으로, 메르켈 총리와의 한·독일 정상회담은 2010년 2월 쾰러 독일 연방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실질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10) 한·영국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 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영국 총리와 2010년 11월 11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교역·투자증진, 한·EU FTA, 서울 G20 정상회의, 한반도 정세 등 주요 국제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정상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 이념을 토대로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국간 우호협력관계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는 한편, 2010년 10월 6일 서명된 한·EU FTA 발효시 양국간 교역·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EU FTA가 예정대로 2011년 7월 1일 발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정상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한 환율 문제 조정, 글로벌 불균형 해소, IMF 개혁은 물론 개발과 금융안전망 분야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G20이 세계경제 문제에 관한 핵심 거버넌스 체제로 공고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한·영국 정상회담 (2010.11.11, 서울)

11) 한·프랑스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한국을 방문한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과 2010년 11월 12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EU FTA, 한·EU 기본협정 등 한·EU 관계,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2010년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한국과 차기 정상회의 주최국인 프랑스간 G20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프랑스 정상회담 (2010.11.12, 서울)

특히 양국 정상은 한·프랑스 양국이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실질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도서를 우리측에 일괄대여키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외규장각도서가 프랑스로 반출된지 145년 만에, 그리고 우리측이 동 문제를 프랑스측에 제기한지 20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한·프랑스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획기적 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터키 정상회담 (2010.11.13, 서울)

12) 한·터키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13일 서울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레젭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정상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양국간 교역·투자 증진, 원전·방산·사회간접자본(SOC) 등 분야에 있어 실질 협력 확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은 한·터키 FTA가 무역 및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양국관계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2004년 이후 6년 만에 방한한 에르도안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2010년 6월 귤 터키 대통령의 방한과 더불어 한·터키 양국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 고위급 외교

1) 총리급 외교

정운찬 국무총리는 6월 29일 방한한 미르코 츠벳코비치(Mirko Cvetković) 세르비아 총리와 회담을 갖고, 교역 및 투자 확대 등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및 유럽 정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였다. 정 총리는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정책협의회 개최를 희망하는 한편, 세르비아의 양호한 투자환경 및 양국간 경제 협력 잠재력을 평가하고, 세르비아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또한 양국간 문화교류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총리회담은 2009년 수교 20주년을 맞은 한국과 세르비아의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협력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022년 월드컵 개최국 결정 프리젠테이션 참석차 스위스 방문 계기에 2010년 12월 1일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영국 총리와 면담하고, 양국관계 증진방안·월드컵 유치 노력·한반도 정세·주요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세르비아 총리회담 (2010.6.29, 서울)

한·영국 총리면담 (2010.12.1, 취리히)

2) 장관급 외교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2010년 1월 11-14일간 공식방한한 우르마스 파엣(Urmas Paet) 에스토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고위인사교류 활성화, 경제·통상협력 강화, 문화교류 증진 및 주요 국제이슈에 관해 심도있게 협의하였다. 양국 장관은 2011년 한·에스토니아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간 교류 확대 및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2010년 1월 28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아프가니스탄 관련 국제회의 참석 계기 아흐멧 다붓올루(Ahmet Davutoğlu) 터키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고위인사교류, 원전·방산 등 실질협력, 국제무대 공조 등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장관은 터키의 한국전 참전 이래 양국이 혈맹 우방국으로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온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향후 고위인사 교류 활성화, 정례협의체 강화, 한·터키 FTA 협상 조속 개시 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원자력발전·방산·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실질협력을 심화·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유 장관은 또한 동 회의 계기 1월 28일 장 아셀보른(Jean Asselborn) 룩셈부르크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1962년 수교 이래 긴밀히 발전해온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평가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은 한·EU 기본협정 및 FT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긴밀히 노력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 세계금융위기 극복 등 주요 국제이슈에 관해 논의하였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2010년 3월 19일 서울에서 베르나르 쿠시네르(Bernard Kouchner) 프랑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프랑스간 고위인사교류, 경제·통상관계 등 실질협력 증진방안, 외규장각도서 반환 문제, G20 협력, 한·EU FTA 및 기본협정, 한반도 정세 등 공동관심사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였다.

유명환 장관은 2010년 4월 5-6일간 방한한 루이스 아마두(Luís Amado) 포르투갈 외교장관과 4월 5일 회담 및 오찬을 갖고, 양국간 고위인사교류, 신재생에너지 분야 실질협력, 2011년 양국 수교 50주년 기념행사, 한·EU FTA 및 기본협정 서명 추진, 한반도 및 EU 정세 등 공동관심사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였다. 양국 외교장관은 회담 직후 「2010-2012 한·포르투갈 문화교류시행계획서」에 서명함으로써, 2011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양국간 문화 분야 교류·협력이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0년 5월 9-11일간 벨기에를 방문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한·EU 기본협정에 서명하고, 한·EU 외교장관회담 및 한·벨기에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유 장관은 5월 10일 캐서린 애쉬튼(Catherine Ashton)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및 27개 EU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한·EU 기본협정에 서명하였다. 한·EU 기본협정은 한·EU 간 새로운 발전방향 및 비전 제시와 함께, 경제분야 협력 위주의 1996년 한·EU 기본협력협정을 정무, 내무사법 분야 등으로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심화시킨 것으로, 한·EU FTA와 함께 양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한·EU 기본협정 서명 후 유 장관은 애쉬튼 고위대표와 한·EU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EU 양자관계, 한반도 및 EU 정세, 주요 국제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유 장관과 애쉬튼 고위대표는 한·EU 기본협정에 이어 한·EU간 무역·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한·EU FTA도 조속히 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및 아프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 지원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침몰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유 장관은 이어 5월 11일 스티븐 바나케르(Steven Vanackere) 벨기에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1901년 수교 이래 긴밀히 발전해온 양국 우호협력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항공 및 원자력 협력 등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한반도 정세, 세계금융위기 및 G20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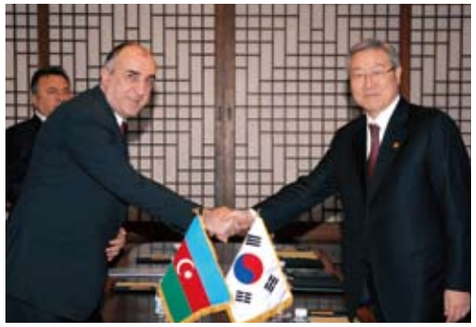
유명환 장관은 2010년 7월 6일 방한한 테오도르 바콘스키(Teodor Baconschi)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교역·투자 증진, 에너지, 인프라, 문화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국제이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외교장관은 2008년 구축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기반으로 양국이 정무,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온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에너지·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유 장관은 천안함 사태 관련 루마니아측의 지지성명 발표에 사의를 표하였고, 바콘스키 장관은 우리측과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신각수 외교통상부장관 직무대행은 2010년 9월 6일 방한한 고르단 얀드로코비치(Gordan Jandroković) 크로아티아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교역·투자 증진, 건설 및 인프라분야 협력, 문화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정세 및 국제이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10년 10월 22-24일간 방한한 파보 바위리넨(Paavo Väyrynen) 핀란드 외교부 통상개발장관과 10월 22일 면담을 갖고, 무역·투자 및 조선분야 협력 등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비롯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성장, 한·EU FTA, G20 등 주요 국제경제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2010년 12월 1-2일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하인쯔 피셔(Heinz Fischer) 오스트리아 대통령, 프랑소와 피용(François Fillon) 프랑스 총리, 마크 루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 닉 클레그(Nick Clegg) 영국 부총리, 리느 에스퍼슨(Lene Esperson) 덴마크 외교장관, 디미트리스 드루차스(Dimitris P. Droutsas) 그리스 외교장관, 에드몬드 하쉬나스토(Edmond Haxhinasto) 알바니아 외교장관, 세르게이 마르티노프(Sergey Martynov) 벨라루스 외교장관과 회동하여,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우리 정부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김 장관과 면담 인사들은 양자간 우호관계 및 실질협력 증진, G20 정상회의 등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통상교섭본부장·핀란드 통상개발장관 면담(2010.10.22, 서울)



한·아제르바이잔 외교장관회담(2010.12.14, 서울)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12월 14일 방한한 엘마 맘마디아로프(Elmar Mammadyarov) 아제르바이잔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교역·투자 증진, 에너지, 인프라, 문화교류 등 제반분야에서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국 외교장관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정무,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아제르바이잔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세계적인 기술을 결합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3. 지역협력 외교

외교통상부는 유럽지역 국가들과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지역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금융위기, 기후변화, 안보문제 등 당면한 국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일조하고 유럽국가들과 경제통상, 문화, 에너지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1)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 OSCE 아시아협력동반자국(Asian Partners for Co-operation)의 일원으로서 OSCE 각료이사회 등에 적극 참석하여 OSCE가 구축한 지역 다자안보협력의 동북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구해왔다.

2010년에는 5월 18-19일간 서울에서 '안보문제의 포괄적 접근에 관한 비전'을 주제로 OSCE 한국회의를 개최하여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에 있어서 OSCE가 상정한 포괄적 안보 개념의 적실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조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함으로써 OSCE 회원국의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김성환 장관은 2010년 12월 1-2일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OSCE 정상회의에 참석, 한국·OSCE간 협력 증진방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북핵문제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OSCE 참여국들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동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OSCE Troika-아시아협력동반자국 외교장관 회의 및 유엔 사무총장, OSCE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수반·외교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미국, 일본, 러시아, 영국, 스페인, 호주 등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2)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우리나라는 인권과 민주주의, 내무사법 분야에서 유럽국가간의 협력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평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유럽평의회 옵저버 가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3절

중남미 지역외교

1. 정상외교

1) 한·가이아나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환경부가 UNEP와 공동 주관하는 제4차 세계경제환경회의(B4E)에서 지구환경대상(Champions of Earth) 특별부문인 생물다양성과 생태계경영 분야 수상을 위해 4월 20-24일간 가이아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방한한 바랏 재그디오(Bharrat Jagdeo) 대통령과 4월 22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정상은 교역·투자 및 국제무대 협력 등을 통해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점증하고 있는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한·가이아나 정상회담 논의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중남미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통상투자인프라조사단이 7월 10-13일간 가이아나를 방문하여 우리기업의 가이아나 투자 진출 가능성 등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였다.

2) 한·멕시코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펠리뻬 깔데론 이노호사(Felipe Calderon Hinojosa) 멕시코합중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6월 30일-7월 2일간 멕시코를 국빈 방문, 7월 1일 멕시코시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및 다자차원의 공동관심 사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정상은 2005년 9월 양국간에 설정된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

한·멕시코 정상회담 (2010.7.1, 멕시코시티)

계'를 기반으로 한·멕시코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인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정치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통상·투자 증진의 기회를 모색하는 동시에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양국민간 사회·문화교류를 더욱 강화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측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공통의 입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OECD, APEC, G20, FEALAC 등 다양한 다자협의체에서도 긴밀한 파트너인 점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깔데론(Calderon)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 참석차 11월 10-12일간 한국을 방한하였다.

3) 한·파나마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리까르도 마르띠넬리 베로깔(Ricardo Martinelli Berrocal) 파나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파나마의 중미통합체제(SICA :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의장국 수임 계기, 한·SICA 정상회담 및 한·파나마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6월 28-30일간 파나마를 공식 방문하였다.

양국 정상은 6월 28일 파나마시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파나마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과 지역 및 국제문제 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깊이있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상호 관심분야에서 정치·경제·통상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파나마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10월 19-21일간 한국을 국빈 방문한 마르띠넬리(Martinelli) 대통령과 10월 20일 정상회담을 갖고, 통상·투자, 자원·인프라 분야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4) 중미카리브국가와의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파나마에서 개최된 제3차 한·SICA 정상회의 참석 계기 6.29 알바로 꼴롬(Alvaro Colom) 과테말라 대통령, 라우라 친치야(Laura Chinchilla) 코스타리카 대통령, 마우리시오 푸네스(Mauricio Funes) 엘살바도르 대통령, 뽀르피리오 로보(Porfirio Lobo) 온두라스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라파엘 알부르께르께(Rafael Alburquerque) 도미니카공화국 부통령을 접견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6월 30일 알바로 우리베(Alvaro Uribe)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콜롬비아 FTA 조기 타결 및 개발협력 문제 등 양국간 실질협력 관계 증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5) 한·볼리비아 정상회담

한·볼리비아 정상회담 (2010.8.26, 서울)

이명박 대통령은 8월 25-28일간 일정으로 볼리비아 국가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방한한 에보 모랄레스 아이마(Evo Morales Ayma) 볼리비아 대통령과 8월 26일 정상회담을 갖고, 통상·투자, 자원협력, 개발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실질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정상회의 직후 양측은 양국 정상 임석하에 「외교관·관용 공무 여권 사증면제협정」, 「EDCF 기본약정」, 「바네가스 교량 건설사업 차관공여 계약서」, 「우유니(Uyuni) 소금광산의 증발자원 산업화 연구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각각 서명하였다.

모랄레스(Morales) 대통령은 한국의 개발경험 습득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우리 진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한 볼리비아대사관 조기 개설 및 우리 기업인에 대한 5년 복수비자 발급 등을 약속하였다.

6) 한·에콰도르 정상회담

라파엘 꼬레아 델가도(Rafael Correa Delgado) 에콰도르 대통령은 9월 8-10일간 방한, 9월 8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실질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

게 논의하였다. 꼬레아(Correa) 대통령은 한국의 개발경험 습득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의 확대를 요청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에콰도르의 국가개발 계획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정부 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최대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고, 인프라 구축,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등 분야에서 에콰도르 정부가 우리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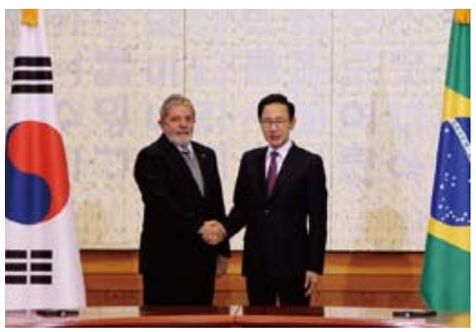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하에 「양국 관세청간 우리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을 위한 협력 협정서」가 서명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에콰도르 정부가 남미국가로는 최초로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양국 정부간 IT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7) 한·브라질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월 11-12일간 방한한 루이스 이나씨우 룰라 다 실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G20에서의 공조,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 교역·투자 증진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질이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교역(약 90억불) 및 최대투자(누계 투자액 약 22억불) 상대국가로서 최근 우리기업들이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향후 5년 내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배가되도록 공동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룰라 대통령도 적극 공감을 표하며,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10.31)에서 승리하고 룰라 대통령을 동행한 지우마 바나 호우세피(Dilma Vana Rousseff) 대통령 당선자와도 인사를 나누고, 당선 축하와 함께 재임기간 중 브라질의 발전과 번영 및 한·브라질 관계 강화를 기원하였다.


한·브라질 정상회담 (2010. 11. 11, 서울)

8) 한·칠레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APEC 요코하마 정상회의 참석 계기 11월 13일 미겔 후안 세바스띠안 삐네라 에체니께(Miguel Juan Sebastián Piñera Echenique)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매몰되었던 칠레 광부 33명이 무사히 구출된 것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어 양국 정상은 1962년 수교 이래 양국이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FTA를 심화·발전해 나가는 데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에너지·자원·인프라 등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9) 한·페루 정상회담

알란 가르시아 뻬레스(Alan Garcia Pérez) 페루 대통령은 11월 14-16일간 공식 방한하였다. 양국은 11월 15일 정상회담을 갖고, 통상 장관간 한·페루 FTA를 가서명한 것에 대해 상호 만족감을 표명하였다.

이 외에도, 양국 정상은 통상·투자 증진, 에너지·자원·인프라 협력, 개발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실질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 고위급 외교

1) 특사 외교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 계기(1.18-26, 이상득, 정해걸, 구상찬 의원), 우루과이 대통령 취임식 계기(2.26-3.8, 김학송, 이계진 의원), 칠레 대통령 취임식 계기(3.8-17, 박희태, 조윤선 의원), 콜롬비아 독립 200주년 및 한국전쟁 참전 60주년 계기(1.24-2.1, 김정훈, 김성식 의원), 코스타리카 대통령 취임식 계기(5.4-17, 김형오 국회의장) 및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 계기(8.2-9, 정정길, 이혜훈 의원)에 대통령 특사를 각각 파견하여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하였다.

2) 장관급 외교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2월 24-25일간 외교장관으로서는 1983년 이후 27년만에 멕시코를 공식 방문하여 중남미 역내 선도국가이자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한 멕시코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2010년 1월 발생한 지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아이티를 4월 14-15일간 방문하여 국제사회의 아이티 재건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고, 유엔아이티안정화임무단(MINUSTAH)의 일원으로 파병되어 있는 '단비부대' 장병들과 우리 진출기업 대표들을 격려하였다.

중남미지역 외교장관의 한국 방문도 활발히 이루어 진 가운데, 브루노 스타그노(Bruno Stagno) 코스타리카 외교장관(1.17-20), 우고 마르띠네스(Hugo Martinez) 엘살바도르 외교장관(1.18-20), 엑또르 라꼬그나따(Héctor Lacognata) 파라과이 외교장관(1.20-23), 모레노 차르메(Moreno Charme) 칠레 외교장관(4.28-29), 빠뜨리시아 에스뻬노사(Patricia Espinoza) 멕시코 외교장관(7.6-7), 레네 까스뜨로(Rene Castro) 코스타리카 외교장관(9.15-18)이 방한하여 양국간 협력증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3) 양자 협의회

엘살바도르와의 수교 이후 처음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2009.12.2, 산살바도르)하였으며, 제7차 한·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2.3, 서울), 한·볼리비아 공동위(7.15, 라파스), 한·에콰도르 공동위(7.19, 키토), 한·파라과이 공동위(9.14, 아순시온), 제3차 한·콜롬비아 공동위(9.20, 보고타) 및 제2차 한·과테말라 정책협의회(12.3, 과테말라시티) 개최를 통해 개별국가와의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실무차원의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지역협력 외교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지역간 협력체인 FEALAC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남미지역의 각종 지역기구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중남미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1)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와 중남미간 유일한 다자협의체인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에 적극 참여하여 양 지역간 이해 제고 및 실질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조정국('04-'07), 경제·사회 실무그룹 공동의장국('07-'10.1월)을 수임하는

등 FEALAC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2010년 1월부터 콜롬비아와 함께 정치·문화·교육·스포츠 실무그룹의 공동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4차 FEALAC 외교장관회의(1.16-17)에서 우리나라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FEALAC 사이버 사무국(Cyber-Secretariat)을 유치하였다. 사이버 사무국은 현재 상설 사무국이 없는 FEALAC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여 회원국간 협력 증진 및 향후 협력 잠재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2010년 10.31-11.3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1차 FEALAC 고위관리회의 및 실무그룹회의에서 우리나라는 FEALAC 정치·문화·교육·스포츠 실무그룹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사이버 사무국의 운영·향후 활동계획을 설명하고 FEALAC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 제시를 위한 '비전그룹' 창설을 제안하였다.

한편 FEALAC 국별프로젝트로 2010년 5월 서울과 제주에서 '제2차 FEALAC 생태관광회의'를 개최하여 FEALAC 회원국간 생태관광 성공사례 및 정보를 교류하였으며, 2010년 9월에는 서울에서 '제2차 FEALAC 최신 이슈 전문가회의'를 개최, 이러닝(e-learning) 관련 정책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중남미 지역 전문가 양성사업

외교통상부는 글로벌 리더 양성 및 중남미지역기구와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중남미 지역기구에 6개월간 파견하여 근무토록 하는 중남미 지역 전문가 양성사업을 200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2010년도에 미주기구(OAS),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중미통합체제(SICA),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중남미에너지기구(OLADE), 아마존협력 조약기구(ACTO) 등 6개 지역기구에 총 17명의 인턴을 파견하였다.

3) 중미통합체제(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와의 협력

중미통합체제(SICA)는 중미지역 통합을 통한 민주주의,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1993년 2월 정식 발족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총 3차례의 정상회담과 9차례의 대화협의체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2010년 6월 파나마에서 개최된 제3차 한·SICA 정상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SICA측 마르띠넬리 파나마 대통령, 친치야 코스타리카 대통령 등 총 6개국 정상이 참석,

양측간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 정상회의시 지식공유사업(KSP), 치안협력 및 전자정부 협력 분야에서 양측간 MOU가 체결되었으며 특히,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SICA국가들은 우리 정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최근 SICA가 경제블록으로서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코스타리카·파나마·과테말라·온두라스·도미니카 공화국 등 중미 5개국과 한·중미 FTA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하였으며, 중미지역과의 경제·금융 협력 강화를 위해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가입을 추진키로 하였다.

4) 카리브공동시장과의 협력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은 중미·카리브 지역내 단일경제시장 형성을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65년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한·CARICOM 대화협의체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2010년 7월 가이아나에서 제1차 정책협의회가 개최되어, 2012년 개최 예정인 여수 세계박람회에 대한 중미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non-permanent seat on the UN Security Council) 입후보(2013-14년 임기),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등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대중남미 경제·통상·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우리나라는 석유수입량의 80%를 중동에 의존하면서도 석유소비량은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어 에너지 도입처 다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중남미는 세계 석유 매장량의 10.6%, 가스 4.7%, 동 43.8%, 은 39%, 철 26.3% 등 각종 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우리의 중요한 협력파트너로서 평가된다. 외교통상부는 경제·통상·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중남미와의 실질협력 증진을 위하여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 개최, 중남미경제협력 카라반 파견, 중남미 자원협력센터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자원개발 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1)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 개최

외교통상부는 5월 26-27일간 '제2차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였다. 동 포럼에는 중남미 9개국(과테말라, 볼리비아,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의 무역·투자, 자원, 인프라, 녹색성장, 개발 관련 부처 장·차관 13명 및 우리나라 관계부처 장·차관 그리고 기업 및 학계인사 등 총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한국과 중남미 고위인사들은 무역·투자, 자원·에너지, 인프라, 녹색성장, 개발금융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중남미 고위인사들은 우리 기업과의 개별면담을 통하여 사업기회 발굴 및 향후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하였다.

금번 2회를 맞은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은 한국과 중남미 정부간 중요한 협력 대화의 장으로서, 양 지역간 발전적 미래를 조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심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외교통상부는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을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한국과 중남미간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 한·중남미 경제협력 카라반

외교통상부는 중남미 재생에너지, 농업개발 및 인프라협력을 위해 2010년 9월 5-17일간 '중남미 경제협력 카라반 대표단'을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파라과이 3개국에 파견하였다. 대표단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전문가가 참가하였다.

카라반 대표단은 방문국 별로 수도와 지방 1-2곳을 방문하여, 고위인사 면담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농업전문가, 정부관계자, 학계인사 등을 대상으로 '농업전문가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우리 농업정책 및 기술을 방문국과 공유하는 한편, 방문국 농업 및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향후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3) 중남미 자원협력센터 운영

외교통상부는 중남미 에너지·자원·인프라 분야 진출에 관심있는 우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4월부터 중남미 자원협력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동 센터는 2006년 주아르헨티나 대사관에 설치된 이래 2년간 한시 운영되어온 남미 자원협력센터의 업무 분야를 중남미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2008년 4월 외교통상부 본부로 이관설치 한 것이다. 또한, 2010년에는 중남미 자원협력센터의 현지 기업 컨설팅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페루,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4개 공관에 센터 분소를 신규로 설치하였다.

중남미자원협력센터는 중남미 에너지자원 분야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남미 10개국 자원 현황, 중남미 자원현황, 2006년도 아르헨티나 국제광업세미나, 아르헨티나 23개주 자원 현황, 외국기업의 대아르헨티나 투자사례집, 아르헨티나 바이오에너지 정책과 개발 및 생산 현황, 중남미 에너지자원 보고서 등을 발간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중남미 에너지자원 관련 주요 정보 및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중남미 에너지 자원 동향〉을 분기별 계간지 형식으로 발간·배포하고 있다.

또한 중남미자원협력센터는 홈페이지(http://energia.mofat.go.kr)를 통해 중남미 공관에서 보내온 신뢰성 있는 최신 소식 및 에너지자원 분야 주요 언론 기사 등을 게재하고, '1:1 자원 핫라인' 코너를 통해 우리기업의 문의 사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진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 기여를 해오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중남미와의 에너지자원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 센터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며, 특히 분소활동 강화를 통한 현지 진출 기업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제4절

아프리카·중동 지역외교

중동지역은 석유, 천연가스 등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 자원의 보고인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시장이기도 하다. 아프리카지역은 21세기 들어 정세 안정과 경제 개혁·개방 정책을 바탕으로 평균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고, 새로운 에너지·자원 공급원으로 부각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2010년 한 해 동안 아중동 국가들과의 고위급 인사교류 및 정부간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실질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주요 에너지 공급원인 아중동지역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원전 수출, 건설·플랜트, 투자, IT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아중동국가와 포럼 개최 및 공연단 파견 등 문화교류를 다양화함으로써 정치·경제·문화를 아우르는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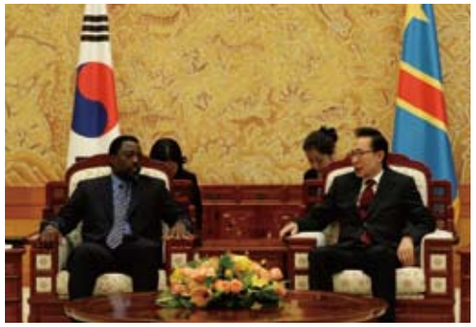
1. 정상외교

1) 한·팔레스타인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2월 10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으로서는 최초로 방한한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수반과 회담, 한·팔레스타인 양자간 협력방안 등 상호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압바스 수반은 단기간 내에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달성한 한국에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한국의 경험을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그간 우리 정부의 대팔레스타인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

한·팔레스타인 정상회담 (2010.2.10, 서울)

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이 조속히 재개되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한·DR콩고 정상회담 (2010.3.29, 서울)

2) 한·DR콩고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3월 29-31일간 국빈 방한한 죠셉 카빌라(Joseph Kabila) DR콩고 대통령과 3월 29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양국간 경제, 문화, 교육, 개발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카빌라 대통령은 DR콩고 국가 재건을 위한 포괄적·전략적 개발계획 수립에 DR콩고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국의 개발경험 및 기술 전수를 적극 희망하였다. 이 대통령은 DR콩고 정부의 전략적 개발계획 수립 추진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DR콩고 국가 재건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3) 한·이스라엘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6월 8-11일간 한국을 방문한 시몬 페레스(Shimon Peres) 이스라엘 대통령과 6월 10일 정상회담을 갖고, 통상·투자,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협력 등 양국간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62년 한국과 이스라엘간 수교 이래 양국이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에 만족을 표명하고,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양국간 실질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페레스 대통령은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

다. 양국 대통령은 최근 양국 관계기관 및 연구소간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관련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해 동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첨단과학 분야에 있어 양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결합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이스라엘 정상회담(2010.6.10, 서울)

한·적도기니 정상회담(2010.8.12, 서울)

4) 한·적도기니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월 11-14일간 적도기니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방한한 테오도로 오비앙 은게마 음바소고(Teodoro Obiang Nguema Mbasogo) 대통령과 8월 12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적도기니가 아프리카에서 선도적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인적자원 개발 및 국방·안보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비앙 대통령은 적도기니가 2020년까지 신흥국가로 발돋움하고자 중장기 발전계획 'Agenda2020'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Agenda2020'의 성공을 위해 우리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 대통령은 적도기니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국가 발전계획으로서 매우 훌륭하다고 답하였으며, 세계적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통해 양국 상호이익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5) 한·가봉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0월 24-26일간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방한한 알리 벤 봉고 온딤바 (Ali Ben Bongo Ondimba) 가봉 대통령과 10월 25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양국이 수교 이래 각별한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평가하며, 봉고

한·가봉 정상회담 (2010.10.25,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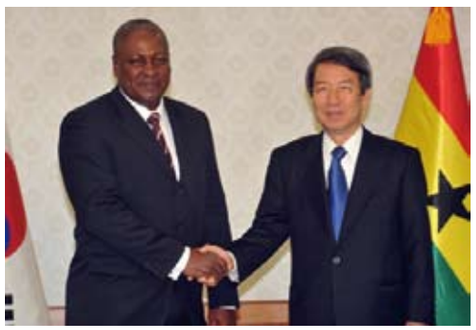
대통령 방한 계기 체결되는 한·가봉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통해 양국간 민간부문에서의 협력이 확대·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봉고 대통령은 가봉정부가 추진중인 '신흥가봉(Emerging Gabon)' 경제발전 전략을 설명하며, '신흥가봉' 전략의 성공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경험 공유를 요청하였다. 봉고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 관련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지 표명에 이명박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고 향후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2. 고위급 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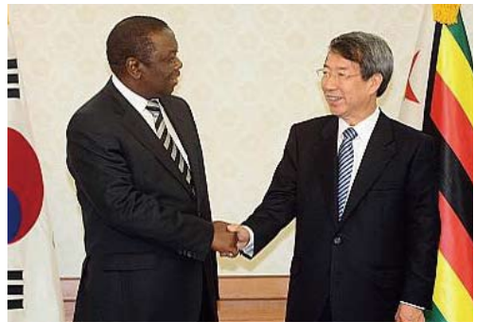
1) 총리급 외교

2010년 3월 1-4일간 방한한 존 드라마니 마하마(John Dramani Mahama) 가나 부통령은 3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이에 앞서 양국은 3월 2일 한·가나 총리회담을 열고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및 개발협력 강화 방안, 특히 한국의 발전 경험 전수 등 양국간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0년 5월 23-26일간 방한한 모건 리차드 창기라이(Morgan Richard Tsvangirai) 짐바브웨 총리는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이에 앞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창기라이 총리와 회담을 갖고 철도 등 인프라 건설, 광물자원, 개발경험 공유 등 양국간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운찬 총리는 우리 기업이 짐바브웨 경제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창기라이 총리는 한국의 개발경험이 짐바브웨 경제 재건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히면서 우리 기업 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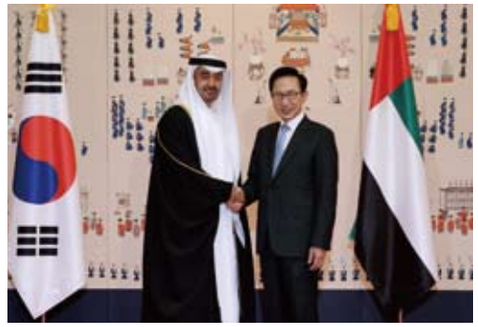


한·가나 총리 회담 (2010.3.2,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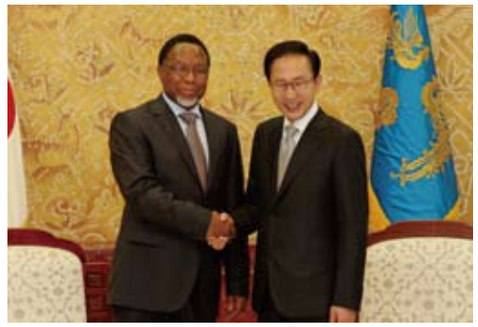
한·짐바브웨 총리회담 (2010.5.24, 서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왕세자는 2010년 5월 25-28일간 방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5일 왕세자를 접견하고 원전 건설·경제협력·에너지·투자 등 주요 관심사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동 방한 기간중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등 주요 산업시설과 우리 특전부대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2009년 12월 우리 기업의 원전 수주 및 이명박 대통령의 UAE 방문시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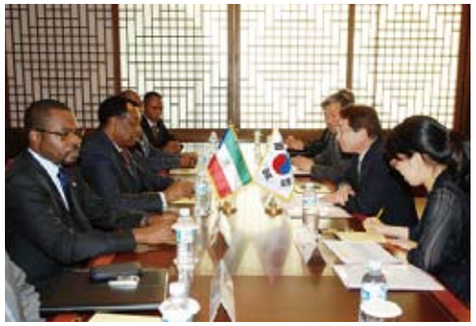


UAE 왕세자 이명박 대통령 예방 (2010.5.25,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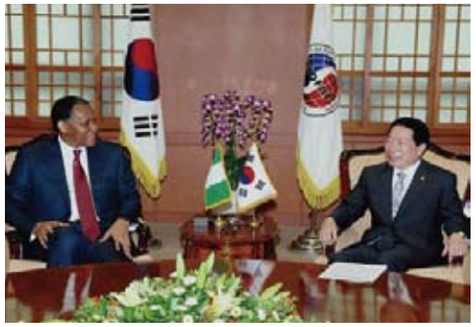
2010년 10월 7-9일간 방한한 칼레마 모틀란테(Kgalema Motlanthe) 남아공 부통령은 10월 8일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예방후 모틀란테 부통령은 신고리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국내 원전 운영 현황 및 APR 1400 건설 현황을 청취하고 신고리 3호기 원자로 건물을 직접 시찰하는 일정을 가졌다. 모틀란테 부통령 수행차 함께 방한한 디퓨오 피터스(Dipuo Peters) 에너지부 장관은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신각수 외교통상부장관 직무대행과 한·남아공 원자력협력협정에 서명하였다.



남아공 부통령 이명박 대통령 예방 (2010.10.8, 서울)



한·적도기니 외교장관회담 (2010.6.23, 서울)



한·나이지리아 외교장관회담 (2010.8.23, 서울)

2) 장관급 외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10년 6월 23-26일간 방한한 미차 온도 빌레(Micha Ondo Bile) 적도기니 외교장관과 6월 23일 회담을 갖고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등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유명환 장관은 적도기니의 인프라 건설 및 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도기니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사하라 이남 제3의 산유국인 적도기니와의 에너지·자원개발 분야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였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10년 8월 22-26일간 방한한 헨리 오데인 아주모고비아(Henry Odein Ajumogobia) 나이지리아 외교장관과 8월 23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장관은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에너지·자원 및 경제·통상 분야 등 제반분야에서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아주모고비아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된 나이지리아 투자환경 설명회에 참석하고, 정유소, 원자력발전소, 조선소 등 우리의 발전된 산업기술을 시찰하는 일정을 가졌다.

2010년 7월 17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고사이비(Khalid bin Mohammed Al-Gosaibi)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기획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15차 한·사우디 공동위원회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과 사우디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통상·투자·석유·건설·교육·직업훈련·치안·문화교류 등 양국간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정책 경험 공유와 원자력 분야 등 새로운 협력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김 본부장과 알-고사이비 장관은 국제 원유시장의 안정이 생산국과 소비국 양쪽에 이익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알-고사이비 장관은 지속적인 원유 공급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한·사우디 양측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통해 양국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기를 희망하였다.

제15차 한·사우디아라비아 공동위원회 (2010.7.17, 리야드)

한·모로코 통상장관회담 (2010.7.19, 라바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10년 7월 18-19일간 모로코를 방문, 7월 19일 압델라띠프 마주즈(Abdellatif Maâzouz) 대외교역부장관과 한·모로코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장관은 국제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모로코간 교역이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만족을 표시하고, 향후 수출 및 교역품목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은 양국간 교역량 확대를 위한 기업인간 접촉 장려, 세미나 개최 및 양국 전문가간 공동 연구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아울러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하였다.

3) 특사급 외교

이상득 대통령 특사는 2010년 7월 6-13일간 리비아를 방문하여 알-바그다디 알리 알-마흐무디(Al-Baghdadi Ali Al-Mahmoudi) 총리와 마흐무드 지브릴(Mahmoud Gebril) 경제개발위원장 등을 면담하였다. 이상득 특사는 한·리비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리비아 내 인프라 건설 사업에 적극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리비아 측에 전달하였다.

또한 이상득 특사는 동 기회에 리비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만나 지난 30여년간 대수로 공사를 비롯한 리비아 국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온 업적을 치하하고, 앞으로 기업 활동을 통해 한·리비아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정운찬 대통령 특사 삼보 부통령 면담 (2010. 9.30, 아부자)

정운찬 대통령 특사는 2010년 9월 29일-10월 1일 3일간 나이지리아를 방문하여 굿럭 조나단(Goodluck Jonathan) 대통령 주재 나이지리아 독립 50주년 기념식 및 만찬, 한·나이지리아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고, 아크모하메드 나마디 삼보(Arcmohammed Namadi Sambo) 부통령을 만나 우리 대통령의 나이지리아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또한 나이지리아 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중소형 원자로(SMART) 및 희토류 광물자원 개발에 양국이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2010년 5월 아프리카 최초로 개원한 아부자 한국문화원을 방문하여 아프리카내 한국문화 홍보활동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3. 지역협력외교

1) 제3회 아랍문화축전

제3회 아랍문화축전이 2010년 5월 18-24일간 국립극장 및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아랍문화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 및 아랍지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개최된 동 행사에는 아랍 4개국(리비아, 레바논, 이라크, 쿠웨이트)의 공연단이 방한하여 아랍 민속공연을 개최하였다. 또한 아랍 푸드마켓, 헤나 체험, 디지털 아랍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동시에 아랍현대미술·도시디자인전을 통해 아랍의 현대 예술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총 5,000여명이 참석한 동 행사를 통해 우리국민에게 다양한 아랍문화를 소개하고 한·아랍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3회 아랍문화축전 이라크 공연(2010.5.20, 서울)

2) 제3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제3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행사가 2010년 10월-12월간 아랍 8개국(레바논,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오만)에서 양측 정부 기관 및 문화·예술 단체 고위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금번 카라반 행사에서는 태권도 시범, 비보이와 사물놀이의 합동 공연, 퓨전 국악 공연, 한식 축제, 한국 영화제 등 문화 행사를 통해 아랍지역에 한국 문화와 예술을 널리 소개하였다.

제3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다스름 공연(2010.11.1, 레바논)

제7차 한·중동협력포럼(2010.12.1, 카이로)

3) 제7차 한·중동협력포럼

제7차 한·중동협력포럼(7th Forum for Korea-Middle East Cooperation)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협력전략센터와 이집트 알-아흐람 정치전략연구센터 공동 주최로 2010년 12월 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되었다. 국내 및 중동 지역 학계, 경제계, 문화계 및 정부인사 36명이 참석하여, △ 동북아와 중동의 안보 및 핵 문제 △ G20 정상회의 후 국제경제 전망, 한·아랍 경제 협력, 세계경제 위기 후 아랍경제 전망, 한국 원자력 에너지 개발 경험 △ 한국내 이슬람 연구, 중동내 한국 연구, 문화·스포츠·한류, 이슬람 문화와 민주주의 등을 주제로 논의하였다. 또한 이집트내 언론인, 교수, 학생 등 170여명이 참관하여 이집트내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4)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 전문가급 회기간 회의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2nd Korea-Africa Forum)에 대한 회기간 회의가 우리 정부와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 집행위 공동 주최로 2010년 12월 2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소재 아프리카연합 본부에서 전문가급으로 개최되었다.

우리 측에서는 정부 실무자와 학계·연구기관·기업 관계자, 아프리카 측에서는 AU 집

제3차 한·중·일 대아프리카 정책대화 (2010.12.23, 서울)

행위원회 관계자와 AU 다자협력소위원회(Multilateral Cooperation Sub-Committee)에 소속된 아프리카 15개국 대표 등 약 25명이 참여하였다. 양측은 2009년 한·아프리카 포럼 후속조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새마을 운동, 한국의 기업가 정신 및 한·아프리카 중소기업 협력 등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5) 한·중·일 대아프리카 정책대화

제3차 한·중·일 대아프리카 정책대화(Trilateral Policy Dialogue on Africa)가 2010년 12월 23일 서울에서 김종근 외교통상부 아프리카중동국장, 일본 쿠사카 수미오 외무성 아프리카국장, 중국 루 사예 외교부 아프리카 국장간에 개최되었다.

제3차 한·중·일 정책대화에서는 한·중·일 3국의 대아프리카 정책 방향과 한·아프리카 포럼(KAF), 중·아프리카협력 포럼(FOCAC),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도쿄 국제회의(TICAD) 등 3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메카니즘에 대한 정보와 아프리카 주요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가능한 협력방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제5절

지역간(Inter-Regional) 외교

1) 제18차 요코하마 APEC 정상회의

제1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가 2010년 11월 13-14일간 일본 요코하마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21개 회원국(economies)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정상들은 「변화와 행동」(Change and Action)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태 지역의 지속성장과 번영, 新 성장전략, 인간안보, 보고르 목표 이행 평가, 다자무역체제 지지, 회원국 확대문제 등 APEC의 미래에 관해 논의하였다.

동 회의의 성과는 첫째, 세계경제 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수립과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APEC 회원국들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정상들은 정상선언문 발표 이외에 별도로 「APEC 新성장 전략에 관한 정상선언」(The APEC Leaders' Growth Strategy)을 채택하여 균형·포용·창의·안전·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新성장전략 이행 평가를 위해 구조개혁, 녹색성장, 지식기반경제 달성에 필요한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창설을 비롯한 지역경제 통합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둘째, 정상들은 자유무역과 열린 시장 촉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DDA 협상 진전 및 보호주의 저지를 위한 별도 성명」(Statement on Advancing WTO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s and Resisting Protectionism)을 채택함으로써 정상들은 DDA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고, 보호주의 저지를 위한 신규 보호주의 조치 도입 동결(Standstill) 결의를 2013년까지 연장키로 합의하였다.

셋째, 정상들은 2010년 보고르(Bogor) 목표 이행 평가에 참여한 5개 선진, 8개 개발

도상 회원국들의 추가적인 무역·투자 자유화 성과를 평가하였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싱가포르, 칠레, 페루 등 8개 개발도상 회원국과 함께 자발적으로 2010년 보고르 목표 이행 평가에 참여하였는데, 이행평가보고서에 표준적합, 통관절차 등 9가지 모범사례로 인용·평가되어, 이행평가 참여 8개 개도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모범사례 인용 국가로 평가되었다.

이 외에도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APEC 정상-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간 대화'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G20과 APEC간 관계, 에너지 안보, 지역경제통합, 녹색성장, 노동력 이동 등을 주제로 기업인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보호주의 저지 관련 G20 성과, 저탄소 배출 농법 확대 정책, 자본규제 강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광대역 통신망 관련 민·관 파트너십 등에 관해 질의 및 응답을 교환하였으며, 기업인들은 G20 의장국인 한국의 관련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10년 APEC 정상회의는 자유무역과 열린 시장 촉진을 위한 아·태지역 정상들의 의지를 표명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전략을 통한 지속성장을 모색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APEC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인구 40%, GDP 55%, 교역량 46%)과 우리나라와 여타 APEC 회원국들간의 교역비중(64%) 등을 감안할때 APEC은 여전히 역내 성장과 통합을 진전시킬 잠재력이 큰 협력체이며, 우리나라에도 매우 유용한 경제외교채널로 기능하고 있다.

2)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동북아 및 남아시아 지역(NESA: Northeast and South Asia) 조정국을 수임하며 벨기에, 캄보디아 및 EU집행위와 함께 제8차 ASEM 정상회의를 준비하였으며, 이를 위해 9월 6-7일간 서울에서 조정국 회의를 개최하고 정상회의 의제선정 및 회원국 확대 등 주요 이슈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2010년 10월 4-5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8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Asia-Europe Meeting)가 개최되어 아시아 16개국, 유럽 27개국 및 제3그룹 3개국 정상들과 EU집행위 및 ASEAN 사무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경제 거버넌스, 지속가능개발, 군축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및 주요 국제정세가 논의되었다.

'삶의 질 - 모든 시민의 보다 나은 복지와 존엄성을 위하여'라는 주제하에 개최된 금번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회의 결과문서로서 「의장성명(Chair's Statement)」과 「보다 효과적인 세계경제 거버넌스에 관한 브뤼셀 선언(Brussels Declaration on More Effective Global Economic Governance)」을 채택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동북아 및 남아시아 지역(NESA) 조정국 정상으로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개회사, 세계경제 거버넌스 세션 지정발언, 조정국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의와 의제 및 기대성과 등에 대해 ASEM 회원국들의 이해 증진 및 지지를 확보하였다. 「보다 효과적인 세계경제 거버넌스에 관한 브뤼셀 선언」에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회원국들의 적극 협력 의지를 표명하는 문안이 포함되는 등 세계경제질서 논의에 있어 우리나라의 역할을 제고하고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지역정세 세션 자유발언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회원국들과의 협력기반을 공고히 했다. 또한 의장성명을 통해 지속가능개발 및 군축·비확산 등 주요 국제현안 관련, 우리정부의 노력에 대한 ASEM 차원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아울러 동 계기에 ① 아시아-유럽 정보통신망(TEIN: 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협력센터 설치, ② ASEM DUO 장학사업 연장(2011-15), ③ 아시아-유럽 중소기업 혁신센터 구축(ASEIC: 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및 ④ 제12차 ASEM 비공식 인권세미나 개최(2012) 등 우리나라 주도 4개 협력 사업을 인준받았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 5월 6-7일간 서울에서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ASEM 포럼을 개최하였다. '녹색성장 경제와 중소기업의 도전과제 및 기회요인'을 주제로 개최된 금번 회의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등이 공동후원국으로 참여하였으며, 회의결과를 공동선언문으로 채택하고 ASEM 회원국들간 중소기업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201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ASEM NESA 조정국 수임, 제8차 정상회의에의 적극적 참여,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 관련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세계 경제질서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역할을 제고하며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ASEM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3) 한·ASEAN / ASEAN+3(한·중·일) / EAS 정상회의

2010년에도 우리 정부는 한·ASEAN, ASEAN+3(한·중·일) 정상회의 및 EAS 정상회의에 적극 참가하였다.

10월 29-30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13차 한·ASEAN 정상회의, 제13차 ASEAN+3 정상회의, 제5차 EAS 정상회의가 각각 개최되었다. 제13차 한·ASEAN 정상회의에서는 한·ASEAN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하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ASEAN측의 역내 개발격차 해소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메콩 외교장관회의(Mekong-ROK Foreign Ministers' Meeting)의 신설을 제안하고, ASEAN 통합이니셔티브(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지원 규모 확대를 발표하였다.

이 대통령은 제13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지역협력 점검 및 미래방향 협의를 위한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II) 설립을 제안하여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또한 참여국 정상들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ASEAN+3 비상쌀비축제도(APTERR)와 같은 ASEAN+3 차원의 기능협력 진전을 평가하였다.

한편, 제5차 EAS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EAS 공식가입이 결정되었으며, EAS 정상회의 출범 5주년을 기념하는 하노이 선언(Ha Noi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지를 확보하였으며, 동아시아 지역 제반 현안에 대해 참여국 정상들과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4) ASEAN 지역안보포럼(ARF)

ASEAN 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은 199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간 정치·안보 분야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예방외교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범한 지역안보협의체이다.

2010년 7월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7차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ARF 외교장관들은 북핵, 남중국해, 아프간, 미얀마 문제 등 주요 국제·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규탄하고, 이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지지하였다.

또한 대테러, 재난구호, 해양안보, 비확산·군축 등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한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 활동을 점검하고, ARF 비전 성명(ARF Vision Statement)의 구체 이행을 위한 하노이 행동계획(Hanoi Plan of Action)을 채택하는 등 ARF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5) 아시아협력대화(ACD)

아시아협력대화(ACD: Asia Cooperation Dialogue)는 동북아, 서남아, 중앙아, 중동 지역을 아우르는 범 아시아 협의체로, 2000년 9월 출범하였으며, 한국, 중국, 일본, ASEAN,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3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0년 11월 8-9일간 이란 테헤란에서 '아시아 연대 : 번영, 평화, 정의'라는 주제로 제9차 ACD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원국들은 아시아 국가간 연계성(connectivity) 증진을 위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고위급회의(HLSG: High Level Study Group) 개최를 통해 ACD 활성화를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였다.

6)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1)]

제3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정상회의가 2010년 6월 7-8일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어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신 차관은 정상회의 수석대표 연설을 통해 신아시아 외교 등 우리 정부의 역내 교류협력 증진 및 평화와 안정 도모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천안함 사태 등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CICA 회원국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신 차관은 CICA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와 유럽지역의 안보협의체인 CICA와 OSCE간 협력, 한-OSCE 관계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안보협력 현황 등에 대해 참가국 수석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 한 해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CICA 고위관리회의(SOC: Senior Officials' Committee) 및 특별실무그룹회의(SWG: Special Working Grou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안보 정세를 협의하고, 대중앙아·대터키 외교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또한 CICA 4대 협력분야(인간, 경제, 환경, 비전통적 안보) 26개 세부의제 중 에너지안보 및 IT 분야 조정국으로서, 9월 6-10일간 서울에서 CICA 회원국을 위한 전자

1)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는 아시아에서의 상호 신뢰구축 및 분쟁예방을 목표로 1992년 10월 출범한 지역안보협의체이다. 회원국은 23개국이며, 사무국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소재한다(아스타나로 이전 예정).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옵서버로 참여해오다 2006년 제2차 정상회의시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2010년부터 2년간 터키가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다.

정부세미나를 개최하여 CICA 신뢰구축조치(CBMs: Confidence-Building Measures)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나라는 CICA 프로세스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CICA내 우리 위상을 제고하고, CICA의 발전 및 회원국간 지역안보 협의, 에너지안보 및 IT 분야 신뢰구축 증진 등에 기여하고 있다.

7)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우리나라는 흑해경제권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2011년 1월 1일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Organization of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에 '부문별 대화 동반자'(SDP: Sectoral Dialogue Partner) 지위로 가입하였다.

흑해지역은 풍부한 자원, 주요 에너지 수송로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흑해경제협력기구는 동 지역 경제협력을 위한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우리나라는 BSEC 가입을 통해 우리의 외교지평을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수송로에 위치하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흑해지역 국가들과의 실질협력 계기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흑해경제협력기구는 흑해 연안국의 교역 및 경협확대를 위해 1992년 6월 25일 터키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정회원국은 터키,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조지아, 몰도바, 세르비아 등 12개국이며, 3억5천만 명의 인구, 대외교역 규모 연 3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